

## [2009국감]전남도 7개 기금, 폐지 등 대부분 '개선권고'

2009.10.06 17:50

전남지역 시·군 기금 54개 개선권고로 '최다'  
홍재형 의원 전국 지자체 기금운용 '부실' 지적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선권고를 받는 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남지역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아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거 있어 폐지나 전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가 홍재형 국회의원(민주·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649개 기금 가운데 56.1%인 364개 기금이 '개선권고'를 받았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5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47개, 강원과 경남이 각각 4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금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기금이 93개(25.5%)로 가장 많았고, 폐지 55개(15.1%), 통·폐합 47개(12.9%),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기금 40개(11%), 사업의 적정화 35개(9.6%) 순이다.

전남도의 경우 국약단육성기금은 성격이 유사한 문예진흥기금과 통합운영되거나 폐지를,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도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및 사업성과 미비로 폐지를 권고했다.

또 인재육성기금은 지난 2008년 10월에 폐지조례가 통과돼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후, 전액이 설립자금으로 출연한 상태며, 한옥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이 적정하지만 최초계획(34억)대비 실제집행(4억4000만원)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사업활성화대책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환경보전기금은 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률이 저조해 추가적인 자금조성이 필요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조성액 수립 및 사업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홍재형 의원은 "지방기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너무 허술하게 운용돼 왔다"며 "앞으로 기금운용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사회복지기금, 2007년 법정기금, 2008년 자치기금 순으로 전국 자치단체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전국 지방기금 수는 2030개, 약 20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의 15.9%에 달한다.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쇄하기

닫기